

대 회 사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이재훈 차관님, 일본전기협회 고이케 노부토시(小池延俊) 전무이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과 전기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42회 '전기의 날' 을 기념하여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기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의 날' 은 1900년 4월 10일, 서울 종로 네거리 전차 정거장에 처음으로 민간전등이 밝혀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아 전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전기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발전설비용량이 오늘날에는 무려 6,600만 kW를 넘어서게 되었고, 140만kW급 차세대원전 개발 사업 등 발전분야를 비롯한 송전, 변전 및 배전 등 모든 전력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자립기반 구축을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해상철탑 시공 신공법을 개발하여 345kV 영흥 해상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선진국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220V 배전전압 승압사업을 3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허난성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완공과 중국 최대의 풍력단지로 조성되는 내몽고의 풍력발전소 준공, 루마니아 등 동구권과의 원자력발전 협력체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레바논 및 리비아 등에서의 전력분야 계약체결 등 해외진출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기인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로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고유가 및 원화강세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전력관련 환경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날이 격화되는 국제경쟁에서 전력산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 기반산업의 공고화, 에너지·자원 확보, 신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은 물론 송전·배전·통신 분야의 신규사업 개발 및 자원개발과 연계한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력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우리 전기계가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사명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한전기협회는 설립목적인 '사회 일반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의 진흥, 문화의 창달, 공익의 증대에 기여' 함으로써 전력산업의 발전과 그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업계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전기인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보내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0일
대한전기협회 회장 이원걸